수 능 특 강

20 ㅍㅌ

- 고 전 시 가 전 문 모 음 -

송인

정지상

雨歇長堤草色多 (우헐장제초색다) 비 개인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送君南浦動悲歌 (송군남포동비가)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수하시진)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別淚年年添綠波 (별루년년첨록파)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무어별

임제

十五月桂女 / 십오월계녀 / 열다섯 아리따운 아가씨

羞人無語別 / 수인무어별 / 남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헤어졌네

歸來掩重門 / 귀래엄중문 / 돌아와 겹문을 꼭꼭 닫아걸고는

泣向梨花月 / 읍향이화월 / 배꽃 같은 달을 향하여 흐느끼네.

안민가(安民歌)

충담사(忠談師)

君隱父也	군(君)은 어비여
臣隱愛賜尸母史也	신(臣)은 ᄃᆞᄉᆞ샬 어ᅀᅵ여.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민(民)ᄋᆞᆫ 얼ᄒᆞᆫ 아ᄒᆡ고 ᄒᆞ샬디
民是愛尸知古如	민(民)이 ᄃᆞᄉᆞᆯ 알고다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	구믈ㅅ다히 살손 물생(物生)
此肹喰惡支治良羅	이흘 머기 다ᄉᆞ라
此地肹捨遺只於冬是去於丁 爲尸知	이 ᄯᅡᄒᆞᆯ ᄇᆞ리곡 어듸 갈뎌 ᄒᆞᆯ디
國惡支持以支知古如	나라악 디니디 알고다.
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 爲內尸等焉	아으, 군(君)다이 신(臣)다이 민(民)다이 ᄒᆞᄂᆞᆯᄃᆞᆫ
國惡太平恨音叱如	나라악 태평(太平)ᄒᆞ니잇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오백년 도읍지를

길재

오백 년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돌아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데 없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이황(李滉)

이런들 엇더ᄒᆞ며 뎌런들 엇더ᄒᆞ료?

草野愚生(초야 우생)이 이러타 엇더ᄒᆞ료?

ᄒᆞᄆᆞᆯ며 泉石膏肓(천석고황)을 고텨 므슴ᄒᆞ료?

〈제 1 곡〉

煙霞(연하)에 집을 삼고 風月(풍월)로 벗을 사마

太平聖代(태평성대)에 病(병)으로 늘거나뇌

이 듕에 ᄇᆞ라ᄂᆞᆫ 일은 허므리나 업고쟈.

〈제 2 곡〉

淳風(순풍)이 죽다ᄒᆞ니 眞實(진실)로 거즈마리

人性(인성)이 어지다 ᄒᆞ니 眞實(진실)로 올ᄒᆞᆫ 말이

天下(천하)에 許多 英才(허다 영재)를 소겨 말솜ᄒᆞᆯ가.

〈제 3 곡〉

幽蘭(유란)이 在谷(재곡)ᄒᆞ니 自然(자연)이 듯디 됴희

白雪(백설)이 在山(재산)ᄒᆞ니 自然(자연)이 보디 됴해

이 듕에 彼美一人(피미일인)을 더옥 닛디 몯ᄒᆞ얘.

〈제 4 곡〉

山前(산전)에 有臺(유대)ᄒᆞ고 臺下(대하)애 有水(유수)ㅣ로다.

ᄇᆡ 만ᄒᆞᆫ 갈며기ᄂᆞᆫ 오명가명 ᄒᆞ거든

엇디다 皎皎白鷗(교교 백구)ᄂᆞᆫ 멀리 ᄆᆞᄉᆞᆷ ᄒᆞᄂᆞᆫ고

〈제 5 곡〉

春風(춘풍)에 花滿山(화만산)ᄒᆞ고 秋夜(추야)애 月滿臺(월만대)라.

四時佳興(사시가흥)이 사ᄅᆞᆷ과 ᄒᆞᆫ가지라.

ᄒᆞᄆᆞᆯ며 魚躍鳶飛(어약연비) 雲影天光(운영천광)이아 어늬 그지 이슬고.

〈제 6 곡〉

天雲臺(천운대) 도라드러 완락재 瀟灑(소쇄)ᄒᆞᆫ듸

萬卷 生涯(만권생애)로 樂事(낙사)ㅣ 無窮(무궁)ᄒᆞ얘라.

이 듕에 往來 風流(왕래풍류)를 닐어 므슴 ᄒᆞᆯ고.

〈제 7 곡〉

雷霆(뇌정)이 破山(파산)ᄒᆞ여도 聾者(농자)ᄂᆞᆫ 못 듯ᄂᆞ니

白日(백일)일 中天(중천)ᄒᆞ야도 瞽者(고자)ᄂᆞᆫ 못 보ᄂᆞ니

우리는 耳目(이목) 聰明(총명) 男子(남자)로 聾瞽(농고) ᄀᆞᆮ디 마로리.

〈제 8 곡〉

古人(고인)도 날 몯 보고 나도 古人(고인) 몯 뵈.

古人(고인)을 몯 뵈도 녀던 길 알ᄑᆡ 잇닉,

녀던 길 알ᄑᆡ 잇거든 아니 녀고 엇뎔고.

〈제 9 곡〉

當時(당시)예 녀ᄃᆞᆫ 길흘 몃 히ᄅᆞᆯ ᄇᆞ려 두고,

어듸 가 ᄃᆞᆫ니다가 이졔ᅀᅡ 도라온고?

이졔나 도라오나니 년 듸 ᄆᆞᅀᆞᆷ 마로리.

〈제 10 곡〉

靑山(청산)ᄂᆞᆫ 엇뎨ᄒᆞ야 萬古(만고)애 프르르며,

流水(유수)ᄂᆞᆫ 엇뎨ᄒᆞ야 晝夜(주야)애 긋디 아니ᄂᆞᆫ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만고 상청)호리라.

〈제 11 곡〉

愚夫(우부)도 알며 ᄒᆞ거니 긔 아니 쉬운가?

聖人(성인)도 못다 ᄒᆞ시니 긔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ᄂᆞᆫ 주를 몰래라.

〈제 12 곡〉

구지가

龜 何 龜 何(구하구하) 거북아, 거북아

首 其 現 也(수기현아) 머리를 내어라.

若 不 現 也(약불현야) 내어 놓지 않으면,

燔 灼 而 喫 也(번작이끽야) 구워서 먹으리.

원왕생가

광덕

月下伊底亦	달이 어째서
西方念丁去賜里遣	서방까지 가시겠습니까
無量壽佛前乃	무량수불 전에
惱叱古音[鄕言云報言也] 多可支白遣賜立	보고의 말씀 빠짐없이 사뢰소서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서원 깊으신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兩手集刀花乎白良	두 손 곧추 모아
願往生願往生	원왕생 원왕생
慕人有如白遣賜立	그러는 이 있다 사뢰소서
阿邪 此身遺也置遣	아아, 이 몸 남겨두고
四十八大願成遣賜去	사십팔대원 이루실까

청산별곡

살어리 살어리랏다 쳥산(靑山)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ᄃᆞ래랑 먹고 쳥산(靑山)애 살어리랏다.

후렴: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이링공 뎌링공 ᄒᆞ야 나즈란 디내와손뎌,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ᄯᅩ 엇디 호리라.

어듸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믜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ᄅᆞ래 살어리랏다.

ᄂᆞᄆᆞ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ᄅᆞ래 살어리랏다.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에졍지 가다가 드로라.

사ᄉᆞ미 짐대예 올아셔 히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가다니 ᄇᆡ브른 도긔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ᄆᆡ와 잡ᄉᆞ와니 내 엇디 ᄒᆞ리잇고.

이 몸이 주거 가셔 ~

성삼문

이 몸이 주거 가셔 무어시 될꼬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야 이서

백설이 만건곤(滿乾坤)할 제 독야청청(獨也靑靑) 하리라.

꿈에 왓던 님이 ~

박효관

꿈에 왔던 님이 깨여 보니 간 듸 업네

탐탐(耽耽)이 괴던 사랑 날 버리고 어듸 간고

꿈속이 허사(虛事)라만졍 자로 뵈게 하여라

창 내고져 창을 내고져 ~

창(窓)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배목걸쇠 크나큰 장도리로

둑닥 박아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할 제면 여다져 볼가 하노라.

어부사시사, 윤선도

-춘사(春詞)-

원문	현대어 풀이
[春詞 1] 압닉예 안긔것고 뒷뫼예 히비썻다. ᄇᆡ 떠라 ᄇᆡ 떠라 밤물은 거의지고 낫물이 미러온다.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江村(강촌)에 온갖곳이 먼빗치 더옥 조해라	앞 포구에 안개가 걷히고 뒷산에 해가 비친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썰물은 거의 빠지고 밀물이 밀려 온다.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강 마을의 온갖 꽃들이 먼 빛으로 바라보니 더욱 좋구나.
[春詞 2] 날이덥도다 물우희 고기썻다‘ 닫 드러라 닫 드러라 갈먹이 둘식셋싯 오락가락 ᄒᆞᄂᆞᆫ고야.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아희야 낙ᄃᆡᄂᆞᆫ 쥐여잇다 濁酒甁(탁주병) 시럿ᄂᆞ냐	날이 따뜻해졌도다. 물 위로 고기 뛰논다. 닻을 들어올려라, 닻을 들어올려라. 갈매기 둘씩 셋씩 오락가락하는구나.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낚시대는 손에 쥐어져 있다. 막걸리 병은 실었느냐?
[春詞 3] 東風(동풍)이 검듣 부니 믉결이 고이인다. 돋 ᄃᆞ라라, 돋 ᄃᆞ라라 東湖(동호)ᄅᆞᆯ 도라보며 西湖(서호)로 가쟈스라.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두어라 압뫼히 지나가고 뒷뫼히 나아온다	동풍이 문득 부니. 물결이 곱게 일어난다. 돛을 달아라, 돛을 달아라. 동호를 돌아보며 서호로 가자꾸나.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나타난다

[春詞 4]

우ᄂᆞᆫ거시 벅구기가 프른거시 버들숩가.

이어라 이어라

漁村(어촌) 두어집이 내속의 날낙들낙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말가ᄒᆞᆫ 깁픈소의 온갓고기 뛰노ᄂᆞᆫ다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드나무 숲인가.

노 저어라 노 저어라.

어촌의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하는구나.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맑고 깊은 못에 온갖 고기 뛰논다.

[春詞 5]

고은볏치 쐬는되 물결이 기름ᄀᆞᆺ다.

이어라, 이어라

구물을 주어두랴 낙시를 노흘일가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아희야 濯纓歌(탁영가)의 興(흥)이나니 고기도 이즐노다

고운 햇빛이 내리 쬐니, 물결이 기름처럼 반짝인다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그물을 넣어 볼 것인가? 낚시를 드리워 볼 것인가?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탁영가의 흥취가 일어나니 고기 잡을 생각도 잊겠도다.

[春詞 6]

夕陽(석양)의 빗겨시니 그만ᄒᆞ여 도라가쟈.

돋 디여라, 돋 디여라

岸柳汀花(안류정화)ᄂᆞᆫ 고븨고븨 ᄉᆡ롭고야.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엇더타 三公(삼공)을 불를소냐 만ᄉᆞ를 ᄉᆡᆼ각ᄒᆞ랴

석양 빛이 비치니 그만하고 돌아가자꾸나. 돛을 내려라 돛을 내려라.

언덕 위의 버들과 물가의 꽃들은 굽이굽이 새롭구나.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삼공(벼슬)을 부러워할쏘냐? 세상 만사 생각해 무엇하리

[春詞 7]

芳草(방초)를 ᄇᆞ라보며 蘭芷(난지)도 쓰더보쟈.

ᄇᆡ 셰여라, ᄇᆡ 셰여라

一葉扁舟(일엽편주)에 시른거시 무스것고.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두어라 갈제ᄂᆞᆫ 내ᄲᅮᆫ이오 올제ᄂᆞᆫ ᄃᆞᆯ ᄲᅮᆫ이로다

운 풀을 밟아 보며. 난초와 지초도 뜯어 보자.

배 멈춰라. 배를 멈춰라.

한 조각 거룻배에다 실은 것이 무엇인고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갈 때는 나뿐이었는데, 올 때는 달이 함께 한다.

[春詞 8]

醉(취)하야 누엇다가 여흘아릐 ᄂᆞ리거다.

ᄇᆡ ᄆᆡ여라, ᄇᆡ ᄆᆡ여라

落紅(낙홍)이 흘너오니 桃源(도원)이 갓갑도다.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아희야 人世紅塵(인세홍진)이 언ᄆᆡ나 가렷ᄂᆞ니

술에 취해 누웠다가 여울 아래 내려간다.

배를 매어라. 배를 매어라.

떨어진 꽃잎이 떠내려 오니 무릉도원이 가까이 있는 듯,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인간 세상의 더러움이 얼마나 내 눈을 가렸던고.

[春詞 9]

낙시줄 거더노코 篷窓(봉창)의 ᄃᆞᆯ을보쟈.

닫 디여라, 닫 디여라

ᄒᆞᄆᆞ 밤들거냐 子規(자규)소릐 ᄆᆞᆰ게ᄂᆞᆫ다.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두어라 남은 興(흥)이 無窮(무궁)ᄒᆞ니 갈길흘 이젓

ᄲᅳᆺ다

낚시줄을 걷어놓고 봉창을 통해 달을 보자.

닻을 내려라, 닻을 내려라.

벌써 밤이 깊었는가, 소쩍새 소리 맑게 들리는구나.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남은 흥취가 끝이 없으니(돌아) 갈 길도 잊었구나.

[春詞10]

來日(내일)이 ᄯᅩ업스랴 봄밤이 엿덧ᄉᆡ리.

ᄇᆡ ᄇᆞ텨라, ᄇᆡ ᄇᆞ텨라

낙ᄃᆡ로 막ᄃᆡ삼고 柴扉(시비)를 ᄎᆞ쟈보자.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두어라 漁父生涯(어부생애)ᄂᆞᆫ 이렁구러 지ᄂᆡ노라

내일이란 날이 또 없으랴. 봄밤이 바로 샐 것이다.

배를 붙여라, 배를 붙여라.

낚싯대로 지팡이를 삼고 우리 집 사립문을 찾아가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어부의 한평생은 이럭저럭 지내노라.

-하사(夏詞)-

[夏詞 1]

구즌비 머러가고 시ᄂᆡ물이 ᄆᆞᆰ아온다.

ᄇᆡ 떠라 ᄇᆡ 떠라

낙ᄃᆡ를 두러메니 깁픈興(흥)을 禁(금)못ᄒᆞᆯ다.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두어라 煙江疊嶂(연강첩장)은 뉘라셔 그려낸고

굿은비가 점차 멎어 가고 시냇물도 맑아진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낚싯대를 들러메니 솟구치는 흥취를 금할 수 없구나.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안개 낀 강 겹겹의 봉우리 누가 그려낸 그림인가?

[夏詞 2]

蓮(년)닙히 밥싸두고 饌飯(찬반)으란 장만마라.

닫 드러라 닫 드러라

靑蓞笠(청약립)은 써잇노라 絲蓑衣(녹사의)를 가져오냐.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엇더타 無心(무심)ᄒᆞᆫ 白鷗(백구)ᄂᆞᆫ 간 곳마다 좃닌다

연잎에 밥을 싸 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마라.

닻을 들어올려라, 닻을 들어올려라.

삿갓은 쓰고 있노라. 도롱이는 가져왔느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무심한 갈매기는 가는 곳마다 좇아 다닌다.

[夏詞 3]

마람닙희 ᄇᆞ람나니 篷窓(봉창)이 셔ᄂᆞᆯ코야.

돋 ᄃᆞ라라, 돋 ᄃᆞ라라

녀름ᄇᆞ람 뎡ᄒᆞᆯ소냐 가ᄂᆞᆫᄃᆡ로 ᄇᆡ시겨라.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아희야 北浦南江(북포남강)이 어ᄃᆡ아니 됴흘너니

마른 풀잎 위로 바람 부니 봉창이 서늘하구나.

돛을 달아라, 돛을 달아라.

여름 바람이 일정하게만 불겠느냐? 그냥 배 가는 대로 두어라.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북쪽 포구나 남쪽 강, 어디든 좋지 않겠는가?

[夏詞 4]

물결이 흐리거든 발을씻다 엇더ᄒᆞ리.

이어라 이어라

吳江(오강)의 가쟈ᄒᆞ니 千年怒濤(천년노도) 슬풀노다.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두어라 楚江(초강)의 가자ᄒᆞ니 魚腹忠魂(어복충혼) 낫글세라

물이 흐리다면 발을 씻는 것이 어떠하리.

노 저어라 노 저어라.

오강으로 가려 하니 천 년의 성난 파도가 슬프도다.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초강으로 가려 하니 고기 뱃속의 충혼(굴원의 넋)을 낚을 가 두렵다.

[夏詞 5]

萬柳綠陰(만류녹음) 어린그ᄃᆡ 一片苔磯(일편태기) 奇特(기특)ᄒᆞ다.

이어라, 이어라

ᄃᆞ리에 다ᄃᆞᆺ거든 漁人爭渡(어인쟁도)허물마라.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가다가 鶴髮老翁(학발노옹) 맛나거든 雷澤效居效則(뇌택효거효즉)ᄒᆞ쟈

[夏詞 6]

긴날이 져므는줄 興(흥)의미쳐 모로도다.

돋 디여라, 돋 디여라

ᄇᆡ대를 두두리고 水調歌(수조가)를 블너보쟈.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엇더타 款乃聲中(관내성중)에 萬古心(만고심)을 긔 뉘알고

[夏詞 7]

夕陽(석양)이 됴타마ᄂᆞᆫ 黃昏(황혼)이 갓갑거다.

ᄇᆡ 셰여라, ᄇᆡ 셰여라

바회우희에 구분길 솔아ᄅᆡ 빗겨잇다.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어ᄃᆡ셔 碧樹鶯聲(벽수앵성)이 곳곳이 들이ᄂᆞᆫ다

[夏詞 8]

모래우희 금을널고 ᄭᅱ밋틔 누어쉬쟈.

ᄇᆡ ᄆᆡ여라, ᄇᆡ ᄆᆡ여라

모긔를 뮙다ᄒᆞᆯ야 蒼蠅(창승)이 엇더ᄒᆞᆫ이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眞實(진실)로 담안ᄒᆞᆫ 勤心(근심)은 桑大夫(상대부) ᄒᆡᆼ혀들을 쎄라

푸른 버들 우거진 곳에 이끼 낀 물가가 마음에 드는구나.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다리에 닿거든 낚시꾼들의 먼저 건너려는 몸싸움을 허물마라.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백발머리 노인을 만나거든 뇌택이 집을 양보한 옛일을 본받자꾸나.

긴 여름날이 저무는 줄을 흥에 겨워 미처 몰랐도다.

돛을 내려라 돛을 내려라.

뱃전을 두드리며 뱃노래를 불러 보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뱃노래 소리에 배어 있는 옛사람의 마음을 그 누가 알겠는가?

석양이 좋다만 어느덧 황혼이 가깝구나.

배 멈춰라. 배를 멈춰라.

바위 위 굽은 길이 소나무 아래로 비스듬히 나 있다.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푸른 숲 속 꾀꼬리 우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구나.

모래 위에 그물을 널고 둠(배의 지붕) 밑에 누워 쉬자.

배를 매어라. 배를 매어라.

모기 밉다지만, 쉬파리와 견주어 어떠한가?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다만 한 가지 근심은 상대부(소인배)가 이런 말을 듣지나 않을까 두렵도다.

[夏詞 9]

밤ᄊᆞ이 風浪(풍랑)닐쑬을 밀이어이 斟酌(짐작)ᄒᆞᆯ리.

닫 디여라, 닫 디여라

夜渡橫舟(야도횡주)를 뉘라셔 닐럿는고.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어즙어 澗邊幽草(간변유초)는 眞實(진실)로 보기죠

홰라

밤사이 풍랑이 일 줄을 어찌 미리 짐작할 수 있겠는가?

닻을 내려라, 닻을 내려라.

들녘 나루터에 배가 가로놓여 있노라 누가 말하였는가?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계곡 가에 우거진 풀도 참으로 애처롭구나.

[夏詞 10]

蝸室(와실)을 ᄇᆞ라보니 白雲(백운)이 둘너있다.

ᄇᆡ 브텨라, ᄇᆡ 브텨라

부들부치 ᄀᆞ로쥐고 石逕(석경)으로 올라가쟈.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아마도 漁翁(어옹)이 閑暇(한가)터냐 이거시 구실이

라

좁은 내 집을 바라보니 흰 구름이 둘러 있구나.

배를 붙여라, 배를 붙여라.

부들부채를 가로쥐고 돌길로 올라가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늙은 어부의 생활이 그리 한가하더냐. 이것이 어부의 직분이렷다.

-추사(秋詞)-

[秋詞 1]

物外(물외)에 조흔일이 漁父生涯(어부생애) 아니런가.

ᄇᆡ 떠라 ᄇᆡ 떠라

漁翁(어옹)을 웃지마라 그림마다 그럿더라.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두어라 四時佳興(사시가흥)이 ᄒᆞᆫ가지나 秋江(추강)이 웃듬이라

속세를 벗어난 곳에서 깨끗한 일로 소일함이 어부의 생활이 아니더냐.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늙은 고기잡이라고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려져 있더라.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사계절의 흥취가 마찬가지로 비슷하나 그 중에서도 가을 강이 제일이라.

[秋詞 2]

水國(수국)이 ᄀᆞᆯ히드니 고기마다 ᄉᆞᆯ져있다.

닫 드러라 닫 드러라

萬頃澄波(만경징파)의 슬ᄏᆞ지 容與(용여)ᄒᆞ쟈.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人間(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죠타

바다에 가을이 찾아오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돛을 달아라, 돛을 달아라.

아득히 넓고 맑은 파도에 실컷 한가롭게 노닐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인간 세상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구나.

[秋詞 3]

白雲(백운)이 이러나니 나무ᄭᅳᆺ치 흔덕인다.

돋 ᄃᆞ라라, 돋 ᄃᆞ라라

밀물에 東湖(동호)가고 혈믈의 西湖(서호)가자.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아희야 넌 그물거더 서리고 닷츨 들고 돛츨 놉히 다라스라

흰 구름 피어나니 바람에 나무 끝이 흔들린다.

돛을 달아라, 돛을 달아라.

밀물 때는 동호로 갔다가, 썰물 때는 서호로 가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넌 그물 걷어 서려 놓고, 닻을 들고 돛을 높이 달아라.

[秋詞 4]

기러기 썻ᄂᆞᆫ밧긔 못보던뫼 ᄇᆡᄂᆞᆫ고야.

이어라 이어라

낙시질도 ᄒᆞ려니와 取(취)한거시 이 興(흥)이라.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두어라 夕陽(석양)이 ᄇᆞᆺ이니 千山(천산)이 錦繡(금수)ㅣ로다

러기 날아가는 밖에 못 보던 산이 보이는구나.

노 저어라 노 저어라.

낚시질도 하겠지마는 내가 취하려는 것이 자연을 즐기는 흥취라.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석양이 눈부시니 모든 산이 수 놓은 비단 같도다.

[秋詞 5]

銀唇玉尺(은순옥척)이 몃치나 걸년ᄂᆞ니.

이어라, 이어라

蘆花(노화)에 불부러 ᄀᆞᆯ히여 구어노코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아희야 질병을 거우러로혀 박국이에 부어다고

살찌고 좋은 물고기가 몇 마리나 걸렸느냐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갈꽃에 불 붙여, 가려서 구워 놓고,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술병을 기울여 표주박 술잔에 부어다오.

[秋詞 6]

녑ᄇᆞ람 고이분이 ᄃᆞᆯ은돗게 돌아왓다.

돋 디여라, 돋 디여라

瞑色(명색)은 나아오되 淸興(청흥)이 멀어잇다.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어인지 綠樹淸江(녹수청강)이 슬믜지도 아녜라

엽바람 고이 부니 매달아 놓은 돛으로 돌아왔다.

돛을 내려라 돛을 내려라.

어둠은 짙어 가는데 맑은 흥취는 아직 남았도다.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단풍든 나무, 맑은 강은 언제 봐도 미워지지 않는구나.

[秋詞 7]

흰이슬 빗겨ᄂᆞᆫᄃᆡ ᄇᆞᆰ은ᄃᆞᆯ 도다온다.

ᄇᆡ 셰여라, ᄇᆡ 셰여라

鳳凰樓(봉황루) 渺然(묘연)ᄒᆞ니 淸光(청광)을 눌을줄고.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어듸셔 玉免(옥토)의 ᄯᅴᄂᆞᆫ藥(약)을 豪客(호객)을 먹이고쟈

흰 이슬이 내릴 즈음에 밝은 달이 떠오른다.

배 멈춰라. 배를 멈춰라.

봉황루 아득하니 맑은 달빛을 누구에게 줄까?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옥토끼가 찧은 약을 속세를 등진 호객에게 먹이고 싶구나.

[秋詞 8]

乾坤(건곤)이 제곰인가 이거시 어듸메오.

ᄇᆡ ᄆᆡ여라, ᄇᆡ ᄆᆡ여라

서풍진 못미츠니 부체ᄒᆞ야 무엇ᄒᆞ리.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두어라 드른말이 업서시니 귀씨셔 무엇ᄒᆞ리

하늘과 땅이 제각각인가? 여기가 어디인가?

배를 매어라. 배를 매어라.

속세의 먼지가 못 미치니 부채질하여 무엇하리.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언짢은 말을 들은 바 없으니 귀를 씻어 무엇하리.

[秋詞 9]

옷우희 셔리오되 치운줄 몰올노다.

닫 디여라, 닫 디여라

釣舡(조강) 좃다ᄒᆞ나 浮世(부세)와 엇더ᄒᆞ니.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두어라 來日(내일)도 이러ᄒᆞ고 모뢰도 이러ᄒᆞ리라

옷 위에 서리가 내려도 추운 줄을 모르겠도다.

닻을 내려라, 닻을 내려라.

낚싯배가 좁다 하나 덧없는 세상과 견주어 어떠하더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내일도 이렇게 하고 모레도 이렇게 지내려 한다.

[秋詞10]

松間石室(송간석실)의 가 曉月(잔월)을 보쟈ᄒᆞ니.

ᄇᆡ 브텨라, ᄇᆡ 브텨라

空山落葉(공산낙엽)의 길흘 엇지 아라볼고.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아희야 白雲(백운)이 조ᄎᆞ오니 女蘿衣(여라의) 무겁고야

소나무 숲속 돌집으로 돌아가 새벽달을 보려 하니

배를 붙여라, 배를 붙여라.

적막한 산에 낙엽이 쌓여 길을 어찌 알아볼꼬.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흰구름이 드러나니 여라의(풀을 엮어 지은 옷)가 무거워지는구나.

-동사(冬詞)-

[冬詞 1]

굴음이 거든後(후)에 ᄒᆡᆺ빗치 둑겁거다.

ᄇᆡ 떠라 ᄇᆡ 떠라

天地閉塞(천지폐색)ᄒᆞ되 바다흔 依舊(의구)ᄒᆞ다.

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ᄀᆞ업고 ᄀᆞ업슨 물ᄲᅧᆯ이 깁편는듯 ᄒᆞ여라

구름이 걷히고 나니 햇볕이 두텁게 내리쬔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천지가 온통 생기를 잃었으나 바다만은 여전하구나.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끝없는 물결이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하다.

[冬詞 2]

주대도 다슬이고 ᄇᆡᆺ밥을 박앗는야.

닫 드러라 닫 드러라

瀟湘洞庭(소상동정)은 그물이 언다ᄒᆞᆫ다.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암아도 잇ᄶᅢ 漁釣(어조)야 이만ᄒᆞᆫ듸 잇시랴

낚싯줄과 낚싯대를 손질하고 뱃밥도 박았느냐?

돛을 달아라, 돛을 달아라.

겨울에 소상강과 동정호는 그물이 언다고 하더라.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이런 때 낚시질하기에 이만한 곳이 없도다.

[冬詞 3]

엿튼개 곡이들이 먼소ᄒᆡ 다갓는이

돋 ᄃᆞ라라, 돋 ᄃᆞ라라

젹은듯 날죠흔제 밧탕의 나가보쟈.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밋기가 밋기곳다오면 굴근곡이 믄다네

얕은 포구의 고기들이 먼 곳으로 다 갔으니

돛을 달아라, 돛을 달아라.

잠깐 동안 날씨가 좋을 때에 일터에 나가 보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미끼가 좋으면 굵은 고기가 문다고 하더라.

[冬詞 4]

간밤의 눈긴後(후)에 景物(경물)이 달낫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ᄂᆞᆫ 萬頃琉璃(만경유리) 뒤희ᄂᆞᆫ 千疊玉山(천첩옥산)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이거시 仙界(선계) 佛界(불계)ᄂᆞᆫ가 人間이 아니로다

간밤에 눈 갠 뒤에 경치와 물색이 달라졌구나.

노 저어라 노 저어라.

앞에는 맑고 넓은 바다. 뒤에는 겹겹이 둘러싸인 백옥 같은 산. 신선의 선계인가?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부처의 세계인가? 인간 세상은 아니로다.

[冬詞 5]

금을 낙씨두고 빗쌔를 두드린다.

이어라, 이어라

압내를 건너봇야 몃番(번)인아 혜여본고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어듸셔 無端(무단)ᄒᆞᆫ 된ᄇᆞ람이 힝여 안이 불어올

ᄭᅡ

그물과 낚시도 잊고 뱃전을 두드리며 흥겨워 한다.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앞 개울을 건너 이 곳에 오려고 몇 번이나 생각했던가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느닷없는 강풍이 행여 불어올까 걱정이다

[冬詞 6]

날아가는 가마괴들이 몃친아 지나건이

돋 디여라, 돋 디여라

압ᄲᆡ이 어두온이 暮雪(모설)이 ᄌᆞ자졌.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뉘라셔 그 죠흔 鵝鴨池(아압지)에 草本苦(초본고)

을 쌋건이

자러 가는 까마귀 몇 마리 지나간다.

돛을 내려라 돛을 내려라.

앞길이 어두워지니 저녁 눈이 점차 잦아들었다.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아압지를 누가 쳐서 부끄러움을 씻어볼까?

[冬詞 7]

丹崖翠壁(단안취벽)이 畵屛(화병)ᄀᆞᆺ치 둘너ᄂᆞᆫ듸

ᄇᆡ 셰여라, ᄇᆡ 셰여라

巨口細鱗(거구세린)을 낫그나 못낫그나.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아희야 孤舟簑笠(고주사립)에 興(흥)겨워 안잣노라

울긋불긋 절벽이 그림 병풍처럼 둘러 있는데,

배 멈춰라. 배를 멈춰라.

꺽저기를 낚나 못 낚나 어디 한번 해 보자꾸나.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외딴 배에 도롱이, 삿갓 쓰고 흥에 겨워 앉았노라.

[冬詞 8]

믉ᄀᆞ의 외로온 솔 혼자어이 싁싁ᄒᆞ고

ᄇᆡ ᄆᆡ여라, ᄇᆡ ᄆᆡ여라

머흔구룸 恨(한)티마라 世上(세상)을 ᄀᆞ리온다.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波浪聲(파랑성)을 厭(염)티마라 塵喧(진훤)을 막ᄂᆞᆫ또다

물가의 외로운 소나무 어이 홀로 씩씩하게 서 있는가.

배를 매어라. 배를 매어라.

험한 구름을 원망하지 마라, 인간 세상을 가려 준다. 파도 소리 꺼리지 마라,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속세의 더러움과 소음을 막아 준다.

[冬詞 9]

滄洲(창주)에 울이道(도)를 녜붓터 닐럿는이

닫 디여라, 닫 디여라

七里羊裘(칠리양구)는 긔 엇더 ᄒᆞ이런고.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모름이 三千六百(삼천육백) 낙씨는 손곱을쎄 어잇턴고

강호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도임을 옛부터 일렀더라.

닻을 내려라, 닻을 내려라.

칠리 여울에서 양피옷을 쓰고 낚시질하던 이는 어떠한가?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삼천육백 날 낚시질하며 손꼽아 때를 기다리던 심정은 어땠을까?

[冬詞10]

어화 졈을어간다 偃息(언식)이 맛당토다.

ᄇᆡ 브텨라, ᄇᆡ 브텨라

ᄀᆞᆫ은눈 ᄲᅮᆯ인길ᄒᆡ 興(흥)침여 돌아와셔

至匊悤(지국총) 至匊悤(지국총) 於思臥(어사와)

西峰(서봉)에 ᄃᆞᆯ넘어 가도록 竹窓(죽창)에 빗겨잇노라

아아! 날이 저물어 가니 편히 쉼이 마땅하도다.

배를 붙여라, 배를 붙여라.

가는 눈이 뿌려진 길에 석양이 비쳐 붉어 보이는 데를 흥겹게 걸어간다.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눈 내리는 밤 달이 서쪽 봉우리를 넘도록 소나무 창가에 기대어 즐기자꾸나.

농가 구장

위백규

〈1 장〉

서산에 도들볏 셔고 굴움은 느제로 낸다.

비 뒷 무근 풀이 뉘 밧시 짓터든고.

두어라 차례 지운 닐이니 매난 대로 매오리라.

〈2 장〉

도롱이예 홈의 걸고 뿔 곱은 검은 쇼 몰고

고동풀 뜻 머기며 깃믈 갓 나려갈 제

어대셔 픔진 벗님 함ㅅ긔 가쟈 하난고.

〈3 장〉

둘러 내자 둘러 내쟈 긴 밭고랑 둘러 내쟈.

바라기 역고를 골골마다 둘러 내쟈.

쉬 짓튼 긴 사래난 마조 잡아 둘려 내쟈.

〈4 장〉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볕은 쬘 대로 쬔다.

청풍(淸風)에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5 장〉

밥그릇에는 보리밥이오 사발의 공잎채라.

내 밥 많을셰요 네 반찬 적을세라.

먹은 뒤 한숨 잠을 자는 경이야 네오 내오 다를소냐.

〈6 장〉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계변(溪邊)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 초적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7 장〉

면홰난 세다래 네다래요 일읜벼난 피난 모가 곱난가

오뉴월이 언제가고 칠월이 반이로다.

아마도 하나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야 삼기샷다

〈8 장〉

아해난 낫기질 가고 집사람은 저리 처친다.

새밥 닉을 때에 새 술을 걸릴셰라.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자불 때에 호흥(豪興)계워 하노라.

〈9 장〉

취(醉)하난이 늘그니요 웃난이 아희로다.

흐튼 순배 흐린 술을 고개 숙여 권할 때예

뉘라셔 흙쟝고 긴노래로 차례춤을 미루는고.

상춘곡

정극인

紅塵에 묻힌 분네 이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風流를 미칠가 못 미칠가

天地間 男子몸이 날만한 이 하건마는

山林에 묻혀있어 至樂을 모를것가

數間 茅屋을 碧溪水 앞에 두고

松竹 울울리에 風月主人 되었세라

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桃李杏花는 夕陽리에 피어있고

綠楊芳草는 細雨中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造化神功이 物物마다 헌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 일체어니

흥인들 다를소냐 시비에 걸어 보고

정자에 앉아 보니 소요 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 진정을

알이 없이 혼자로다 이바 이웃들아

산천 구경 가자스라 답청일랑 오늘하고

욕기는 내일하세 아침에 채산하고

나조에 조수하세 갓괴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바퉈 놓고 꽃나무 가지 꺽어

수 놓고 먹으리라 화풍이 건듯 불어

녹수를 건너오리 청향은 잔에 지고

낙홍은 옷에 진다 준중이 비었거든

날더러 아뢰어라 소동 아해더러

주가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좋은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로다 무릉이 가깝도다

저 뫼이 그것인가

송간 세옥에 두견화를 부치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 만락이 곳곳에 벌려 있네

연하 일휘는 금수를 재폈는 듯

엊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할사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청풍 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고

단표 누항에 홑은 혜옴 아니하게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남의 분별 하시는고 우리는 준준하와

대도를 모르어도 인생도 저러하다

소치기 아나이다 송아지 어이 쫓아

녹음간에 절로 내어 이리가락 저리가락

누으락 일어나락 풀잔디 뒤져 먹고

시냇물 흘러 마셔 먹음먹이 박하여도

제 뜻대로 노닐기와 귓도래 코에 꿰어

저 고삐 굳게 잡아 곧은 낚대 삶은 콩을

배가지 칠지라도 물 같은 더운 볕에

한겨리 마주 메워 코춤은 카니와

흘없게 그지없다 어느 소는 고되고

어느 소는 한가하뇨 일시에 빛나가야

희생만 할건가 헌 덕석 벗기 치고

금의 삼정 갈아 덮어 삿구레 벗기 치고

홍사로 얽어 내어 대로에 벽제하고

예관이 고삐 잡아 태묘를 들어 가서

포정의 큰 도채에 골절이 제곰 나니

저더러 물어 보면 어느소 되랴할고

고금에 어질기야 공부자만 할까마는

광인이 욕 보시고 진채에 싸이시여

목탁이 되여겨사 도로에 늙으시니

전 사람 이른 말이 그 아니 옳톳던가

부차의 촉루검을 오자서를 준단 말가

서산 저문 날에 비풍이 스슬하다

무안군 백기는 이룬 공도 하건마는

두우역 하라 나재 칼을 주어 죽이더고

이사는 승상으로 보수를 다한 후에

부귀도 극진하고 영총도 무한터니

상채 동문에 누런 개를 슬퍼하네

나는 새 진한 후면 양궁이 장하이고

토끼를 잡은 후에 산영개 아랑곳가

한신의 공적으로 삼족조차 죽이더고

문인은 예로부터 궁상이요 박명이라

만장 광염이 니 뒨들 욀가마는

고신 거국에 야량이 몇 천리요

성도 초당에 성계도 소조하다

한창려 문장으로 동정 춘풍에

물결이 일어나니 조주 팔천리에

고국이 어드메요 지하로 옷을 하고

난초도 섯거 차고 이소 구가의

문자는 좋건마는 초강 밝은 달에

한원이 슬피 우니 장상 문장이

그 아니 섬거우냐 산중에 사향 느니

깊이는 있건마는 춘풍이 헌사하여

향내를 불러 내어 산하에 날랜 살을

면하기 어렵거던 군미끼 혈낚시를

어히하여 따르는다 기산에 귀 씻기와

상류의 소 먹이기 즐겁고 즐거움을

너희는 모르리라 내 노래 한 곡조를

불러든 들어 보소 장안을 돌아보니

풍진이 아득하다 부귀는 부운이요

공명은 와각이라 이 퉁소 한 곡조에

행화촌을 찾으리라

속미인곡

정철

뎨 가ᄂᆞᆫ 뎌 각시 본 듯도 ᄒᆞᆫ뎌이고.

天텬上샹 白빅玉옥京경을 엇디ᄒᆞ야 離니別별ᄒᆞ고,

ᄒᆡ 다 뎌 져믄 날의 눌을 보러 가시ᄂᆞᆫ고.

어와 네 여이고 내 ᄉᆞ셜 드러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얌즉 ᄒᆞᆫ가마ᄂᆞᆫ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ᄉᆡ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릐야 교틔야 어ᄌᆞ러이 구돗썬지

반기시ᄂᆞᆫ ᄂᆞᆺ비치 녜와 엇디 다ᄅᆞ신고.

누어 ᄉᆡᆼ각ᄒᆞ고 니러 안자 혜여ᄒᆞ니

내 몸의 지은 죄 뫼ᄀᆞ티 빠혀시니

하ᄂᆞᆯ히라 원망ᄒᆞ며 사ᄅᆞᆷ이라 허믈ᄒᆞ랴.

셜워 플텨 혜니 造조物믈의 타시로다.

글란 ᄉᆡᆼ각 마오.

ᄆᆡ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믈 ᄀᆞᄐᆞᆫ 얼굴이 편ᄒᆞ실 적 몃 날일고.

春츈寒한苦고熱열은 엇디ᄒᆞ야 디내시며

秋츄日일冬동天쳔은 뉘라셔 뫼셧ᄂᆞᆫ고.

粥죽早조飯반 朝죠夕석 뫼 녜와 ᄀᆞᆺ티 셰시ᄂᆞᆫ가.

기나긴 밤의 ᄌᆞᆷ은 엇디 자시ᄂᆞᆫ고.

님다히 消쇼息식을 아므려나 아쟈 ᄒᆞ니

오ᄂᆞᆯ도 거의로다. ᄂᆡ일이나 사ᄅᆞᆷ 올가.

내 ᄆᆞᄋᆞᆷ 둘 ᄃᆡ 업다. 어드러로 가쟛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뫼히 올라가니

구롬은ᄏᆞ니와 안개ᄂᆞᆫ ᄆᆞᄉᆞ 일고.

山산川쳔이 어둡거니 日일月월을 엇디 보며

咫지尺쳑을 모ᄅᆞ거든 千쳔里리ᄅᆞᆯ ᄇᆞ라보랴.

출하리 믈ᄀᆞ의 가 ᄇᆡ 길히나 보쟈 ᄒᆞ니

ᄇᆞ람이야 믈결이야 어둥졍 된뎌이고.

샤공은 어ᄃᆡ 가고 븬 ᄇᆡ만 걸렷ᄂᆞ니.

江강川텬의 혼자 셔셔 디ᄂᆞᆫ ᄒᆡᄅᆞᆯ 구버보니

님 다히 消쇼息식이 더옥 아득ᄒᆞᆫ뎌이고.

茅모簷쳠 ᄎᆞᆫ 자리의 밤듕만 도라오니

半반壁벽靑쳥燈등은 눌 위ᄒᆞ야 ᄇᆞᆯ갓ᄂᆞᆫ고.

오ᄅᆞ며 ᄂᆞ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져근덧 力녁盡진ᄒᆞ야 픗ᄌᆞᆷ을 잠간 드니

精졍誠셩이 지극ᄒᆞ야 ᄭᅮᆷ의 님을 보니

玉옥 ᄀᆞᄐᆞᆫ 얼구리 半반이 나마 늘거셰라.

ᄆᆞᄋᆞᆷ의 머근 말ᄉᆞᆷ 슬ᄏᆞ장 ᄉᆞᆲ쟈 ᄒᆞ니

눈믈이 바라 나니 말ᄉᆞᆷ인들 어이 ᄒᆞ며

情졍을 못다ᄒᆞ야 목이조차 몌여ᄒᆞ니

오뎐된 鷄계聲셩의 ᄌᆞᆷ은 엇디 ᄭᅵ돗던고.

어와, 虛허事ᄉᆞ로다. 이 님이 어ᄃᆡ 간고.

결의 니러 안자 窓창을 열고 ᄇᆞ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ᄎᆞᆯ ᄲᅮᆫ이로다.

ᄎᆞᆯ하리 ᄉᆡ여디여 落낙月월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窓창 안희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ᄃᆞᆯ이야ᄏᆞ니와 구ᄌᆞᆫ 비나 되쇼셔.

선상탄

박인로

늘고 병(病)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ᄂᆡ실ᄉᆡ

을사 삼하(乙巳三夏)애 진동영(鎭東營) ᄂᆞ려오니

관방 중지(關防重地)예 병(病)이 깊다 안자실랴

일장검(一長劍) 비기 ᄎᆞ고 병선(兵船)에 구테 올나

여기 진목(厲氣瞋目)ᄒᆞ야 대마도(對馬島)를 구어보니

ᄇᆞ람 조친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사혀잇고

아득ᄒᆞᆫ 창파(滄波)ᄂᆞᆫ 긴 하ᄂᆞᆯ과 ᄒᆞᆫ 빗칠쇠

선상(船上)에 배회(船上)ᄒᆞ며 고금(古今)을 사억(思憶)ᄒᆞ고

어리 미친 회포(懷抱)애 헌원씨(軒轅氏)를 애ᄃᆞ노라

대양(大洋)이 망망(茫茫)ᄒᆞ야 천지(天地)예 둘려시니

진실로 ᄇᆡ 아니면 풍파만리(風波萬里) 밧긔

어ᄂᆡ 사이(四夷) 엿볼넌고

무슴 일 ᄒᆞ려 ᄒᆞ야 ᄇᆡ 못기를 비롯ᄒᆞᆫ고

만세 천추(萬世千秋)에 ᄀᆞ업슨 큰 폐(弊)되야

보천지하(普天之下)애 만민원(萬民怨) 길우ᄂᆞ다

어즈버 ᄉᆡ ᄃᆞ라니 진시황(秦始皇)의 타시로다

ᄇᆡ 비록 잇다 ᄒᆞ나 왜(倭)를 아니 삼기던들

일본 대마도(日本對馬島)로 뷘ᄇᆡ 졀로 나올넌가

뉘 말을 미더 듣고 동남 동녀(童南童女)를 그ᄃᆡ도록 드려다가

해중(海中) 모든 셤에 난당적(難當賊)을 기쳐두고

통분(痛憤)ᄒᆞᆫ 수욕(羞辱)이 화하(華夏)애 다 밋나다

장생 불사약(長生不死樂)을 얼ᄆᆡ나 어더 ᄂᆡ여

만리장성(萬里長城) 놉히 사고 몃 만년(萬年)을 사도썬고

ᄂᆞᆷᄃᆡ로 죽어가니 유익(有益)ᄒᆞᆫ 줄 모ᄅᆞ도다

어즈버 싱각ᄒᆞ니 서불 등(徐市等)이 이심(己甚)ᄒᆞ다

인신(人臣)이 되야셔 망명(亡命)도 ᄒᆞᄂᆞᆫ것가

신선(神仙)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주사(舟師)이 시럼은 젼혀 업게 삼길럿다

두어라 기왕 불구(旣往不咎)라 일너 무엇 ᄒᆞ로소니

쇽졀업슨 시비(是非)를 후리쳐 더뎌 두쟈

잠사 각오(潛思覺悟)ᄒᆞ니 내 ᄯᅳᆺ도 고집(固執)고야

황제 작주거(黃帝作舟車)ᄂᆞᆫ 왼 줄도 모ᄅᆞ로다

장한 강동(張翰江東)애 추풍(秋風)을 만나신들

편주(扁舟) 곳 아니 타면 천청 해활(天淸海濶)ᄒᆞ다

어ᄂᆡ 흥(興)이 졀로 나며 상공(三公)도 아니 밧골

제일 강산(第一江山)애 부평초(浮萍草) ᄀᆞᆺᄒᆞᆫ 어부 생애(漁夫生涯)을

일엽주(一葉舟) 아니면 아ᄃᆡ 부쳐 ᄃᆞᆫ힐ᄂᆞᆫ고

일언 닐 보건던 ᄇᆡ 삼긴 제도(制度)야

지묘(至妙)ᄒᆞᆫ 덧ᄒᆞ다마ᄂᆞᆫ 엇디ᄒᆞᆫ 우리 물은

ᄂᆞᄂᆞᆫ ᄃᆞᆺᄒᆞᆫ 판옥선(板屋船)을 주야(晝夜)의 빗기 ᄐᆞ고

임풍 영월(臨風咏月)호ᄃᆡ 흥(興)이 젼혀 업ᄂᆞᆫ게오

석일 주중(昔日舟中)에ᄂᆞᆫ 배반(杯盤)이 낭자(狼籍)터니

금일 주중(今日舟中)에ᄂᆞᆫ 대검장창(大劍長鎗)뿐이로다

ᄒᆞᆫ 가지 ᄇᆡ언마ᄂᆞᆫ 가진 ᄇᆡ 다라니

기간 우락(其間憂樂)이 서로 ᄀᆞᆺ지 못ᄒᆞ도다

시시(時時)로 멀이 드러 북신(北辰)을 ᄇᆞ라보며

상시 노루(傷時老淚)ᄅᆞᆯ 천일방(天一方)의 디이ᄂᆞ다

오동방 문물(吾東方文物)이 한당송(漢唐宋)애 디랴마ᄂᆞᆫ

국운(國運)이 불행(不幸)ᄒᆞ야 해추흉모(海醜兇謀)애

만고수(萬古羞)을 안고이셔

백분(百分)에 ᄒᆞᆫ 가지도 못 시셔 ᄇᆞ려거든

이 몸이 무상(無狀)ᄒᆞᆫᄃᆞᆯ 신자(臣子) ㅣ 되야 이셧다가

궁달(窮巷)이 길이 달라 몬 뫼웁고 늘거신ᄃᆞᆯ

우국 단심(憂國丹心)이야 어닉 각(刻)애 이즐넌고

강개(慷慨) 계운 장기(狀氣)ᄂᆞᆫ 노당익장(老當益壯)ᄒᆞ다마ᄂᆞᆫ

됴고마ᄂᆞᆫ 이 몸이 병중(病中)에 드러시니

설분 신원(雪憤伸寃)이 어려울 ᄃᆞᆺ ᄒᆞ건마ᄂᆞᆫ

그러나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仲達)을 멀리 좃고

발 업슨 손빈(孫臏)도 방연(龐涓)을 잡아거든

ᄒᆞ믈며 이 몸은 수족(手足)이 ᄀᆞ자잇고 명맥(命脈)이 이어시니

서절 구투(鼠竊狗偸)을 저그나 저흘소냐

비선(飛船)에 ᄃᆞᆯ려드러 선봉(先鋒)을 거치면

구시월 상풍(九十月霜風)에 낙엽(落葉)가치 헤치리라

칠종칠금(七縱七禽)을 우린ᄃᆞᆯ 못ᄒᆞᆯ 것가

준피 도이(蠢彼島夷)들아 수이 걸항(乞降)ᄒᆞ야ᄉᆞ라

항자 불살(降者不殺)이니 너를 구ᄐᆡ 섬멸(殲滅)ᄒᆞ랴

오왕 성덕(吾王聖德)이 욕병생(欲幷生)ᄒᆞ시니라

태평 천하(太平天下)애 요순군민(堯舜君民) 되야 이셔

일월 광화(日月光華)ᄂᆞᆫ 조부조(朝復朝)ᄒᆞ얏거든

전선(戰船) ᄐᆞ던 우리 몸도 어주(漁舟)에 창만(唱晩)ᄒᆞ고

추월 춘풍(秋月春風)에 놉히 베고 누어 이셔

성대 해불 양파(聖代海不揚波)ᄅᆞᆯ 다시 보려 ᄒᆞ노라

원산아리랑(신고산 타령)

신고산이 우루루 함흥 차 가는 소리에

구고산 큰애기 반봇짐만 싼다

(후렴) 어랑어랑 어허야 어야 더야 내 사랑아

가을바람 소슬하니 낙엽이 우수수 지고요

귀뚜라미 슬피 울어 남은 간장 다 썩이네

휘늘어진 낙락장송 휘어 덥석 잡고요

애달픈 이내 진정 하소연이나 할까나

삼수갑산 머루 다래는 얽으러 섥으러졌는데

나는 언제 임을 얽으래 섥으러지느냐

상갯골 큰애기 정든 임 오기만 기다리고

삼천만 우리 동포 통일되기만 기다린다

가지 마라 잡은 손 야멸차게 떼치고

갑사댕기 팔라당 후치령 고개를 넘노다

울적한 심회를 풀 길이 없어 나왔더니

처량한 산새들은 비비배배 우노나

밀양 아리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듯이 날 좀 보소

(후렴: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정든 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밀양의 아랑각은 아랑넋을 위로코 진주의 의암은 논개충절 빛내네

저 건너 대 숲은 의의한데 아랑의 설운 넋이 애달프다

아랑의 굳은 절개 죽음으로 씻었고 고결한 높은 지조 천추에 빛난다

방물가

서방(書房)님 정(情) 떼고 정(正) 이별(離別)한대도 날 버리고 못 가리라

금일 송군(送君) 임 가는데 백년소첩(百年小妾) 나도 가오 날 다려 날 다려 날 다려가오

한양낭군(漢陽郞君)님 날 다려가오 나는 죽네 나는 죽네 임자로 하여 나는 죽네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제일명당(第一名堂) 터를 닦아 고대광실(高臺廣室) 높은 집에 내외분합(內外分閤) 물림퇴며 고불도리 선자(扇子) 추녀 헝덩그렇게 지어나 주랴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연지분(臙脂粉) 주랴 면경(面鏡) 석경(石鏡) 주랴 옥지환(玉指環) 금봉차(金鳳釵) 화관주(花冠珠) 딴 머리 칠보(七寶) 족두리 하여나 주랴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세간 치례(致禮)를 하여나 주랴

용장(龍欌) 봉장(鳳欌) 귓도리 책상이며 자개 함롱(函籠) 반다지 삼층 각계수리 이층(二層) 들미장(欌)에 원앙금침(鴛鴦衾枕) 잣베게 샛별 같은 쌍요강(雙尿江) 발치발치 던져나 주랴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의복 치례(衣服致禮)를 하여나 주랴

보라[藍色] 항릉(亢綾) 속저고리 도리볼수 겉저고리 남문대단 잔솔치마 백방수화주 고장바지 물면주 단속곳에 고양 나이 속버선에 몽고삼승 겉버선에 자지 상직 수당혜(繡唐鞋)를 명례궁(明禮宮) 안에 맞추어 주랴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을 다 일러라

노리개 치레를 하여나 주랴

은(銀)조로롱 금(金)조로롱 산호(珊瑚)가지 밀화불수(蜜花佛手) 밀화장도(蜜花粧刀) 곁칼이며 삼천주 바둑실을 남산(南山)더미만큼 하여나 주랴 나는 싫소 나는 싫소 아무것도 나는 싫소 고대광실도 나는 싫고 금의옥식(錦衣玉食)도 나는 싫소 원앙충충 걷는 말에 마부담(馬負擔)하여 날 다려 가오

남과탄

정약용

궂은비 열흘 만에 여기저기 길 끊기고	苦雨一旬徑路滅
성안에도 시골에도 밥 짓는 연기 사라져	城中僻巷烟火絶
태학에서 글 읽다가 집으로 내 돌아와	我從太學歸視家
문안에 들어서자 시끌시끌 야단법석	入門譁然有饒舌
들어 보니 며칠 전에 끼닛거리 떨어져서	聞說罌空已數日
호박으로 죽을 쑤어 허기진 배 채웠는데	南瓜鬻取充哺歠
어린 호박 다 땄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早瓜摘盡當奈何
늦게 핀 꽃 지지 않아 열매 아직 안 맺었네	晩花未落子未結
항아리만큼 커다란 옆집 밭의 호박 보고	隣圃瓜肥大如瓬
계집종이 남몰래 그걸 훔쳐 가져와서	小婢潛窺行鼠竊
충성을 바쳤으나 도리어 맞는 야단	歸來效忠反逢怒
누가 네게 훔치랬냐 회초리 꾸중 호되네	孰敎汝竊箠罵切
어허 죄 없는 아이 이제 그만 화를 푸소	嗚呼無罪且莫嗔
이 호박 나 먹을 테니 더 이상 말을 말고	我喫此瓜休再說
밭 주인에게 떳떳이 사실대로 얘기하소	爲我磊落告圃翁
오릉 중자 작은 청렴 내 아니 달갑다네	於陵小廉吾不屑
나도 장차 때 만나면 청운에 오르겠지만	會有長風吹羽翮

그게 되지 않으면 금광 찾아 나서야지　　不然去鑿生金穴

만 권 서적 읽었다고 아내 어찌 배부르랴　　破書萬卷妻何飽

밭 두 뙈기만 있어도 계집종 죄 안 지었으리　　有田二頃婢乃潔

산민

김창협

下馬問人居 하마문인거 말에 내려 인가를 찾아가 보니

婦女出門看 부녀출문간 아낙네문간에 나와 맞이하네

坐客茅屋下 좌객모옥하 띠집처마아래 손을 앉게 하고

爲我具飯餐 위아구반찬 나를 위해 밥과 반찬 내어오네

丈夫亦何在 장부역하재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냐 하니

扶犁朝上山 부리조상산 아침에 따비를 메고 산에 올라

山田苦難耕 산전고난경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日晩猶未還 일만유미환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

四顧絶無隣 사고절무린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鷄犬依層巒 계견의층만 개와 닭도 산기슭에 의지해 사네

中林多猛虎 중림다맹호 숲 속에는 사나운 호랑이 많아

採藿不盈盤 채곽불영반 나물도 마음대로 못 뜯는다네

哀此獨何好 애차독하호 슬프다 외딴 살이 어찌 좋으리

崎嶇山谷間 기구산곡간 험하고 험한 산골짝에서……

樂哉彼平土 락재피평토 평지에 살면 더없이 좋으련만

欲往畏縣官 욕왕외현관 가고 싶어도 벼슬아치 두렵다네

곡자

허난설헌

去年喪愛女(거년상애녀) : 지난 해 귀여운 딸을 잃었고

今年喪愛子(금년상애자) : 올해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哀哀廣陵土(애애광릉토) : 서럽고 서러운 광릉 땅이여.

雙墳相對起(쌍분상대기) : 두 무덤이 나란히 마주 보고 있구나.

蕭蕭白楊風(소소백양풍) : 백양나무에는 쓸쓸한 바람 불고

鬼火明松楸(귀화명송추) :도깨비불은 숲속에서 번쩍인다.

紙錢招汝魂(지전초여혼) : 지전으로 너의 혼을 부르고,

玄酒存汝丘(현주존여구) : 너희 무덤에 술잔을 따르네.

應知第兄魂(응지제형혼) : 아아, 너희들 남매의 혼은

夜夜相追遊(야야상추유) : 밤마다 정겹게 어울려 놀겠지.

縱有服中孩(종유복중해) : 비록 뱃속에 아기가 있다 한들

安可糞長成(안가분장성) : 어찌 그것이 자라기를 바라리오.

浪吟黃坮詞(낭음황대사) : 부질없이 황대 노래를 읊조리다

血泣悲呑聲(혈읍비탄성) : 피눈물로 울다가 목이 메는구나.

일신아 사쟈 한이 ~

이정보

一身(일신)이 사쟈 하니 물것 계워 못 견딜쇠

皮(피)겨 가튼 가랑니 보리알 가튼 슈통니 줄인니 갓 깐니 잔 벼록 굴근 벼록 강벼룩 倭(왜)벼록 긔는 놈 뛰는 놈에 琵琶(비파) 가튼 빈대 삭기 使令(사령) 가튼 등에아비 갈따귀 샴의약이 셴 박희 눌은 박희 바금이 거절이 부리 뽀족한 모기 다리 기다란 모기 야왼 모기 살진 모기 글임애 뾰록이 晝夜(주야)로 뷘 때 업시 물거니 쏘거니 빨거니 뜻거니 甚(심)한 唐(당)빌리 이보다 어려우랴

그 中(중)에 차마 못 견딜손 六月(유월) 伏(복)더위예 쉬파린가 하노라.

개를 여라믄이나 기릐되 ~

개를여라믄이나기릐되요개ᄀᆞᆺ치얄믜오랴

뮈온님오며ᄂᆞᆫ ᄭᅩ릴홰홰치며쒸락ᄂᆞ리쒸락반겨서내ᄃᆞᆺ고

고온님오며ᄂᆞᆫ 뒷발을버동버동므르락나으락캉캉즈져서도라가게ᄒᆞᆫ다

쉰밥이그릇그릇난들너머길줄이이시랴

댁들에 동난지이 사오 ~

작자 미상

댁들에 동난지이 사오. 져 쟝스야, 네 황후 긔 무서시라 웨난다, 사쟈.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前行) 후행(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아스슥하는 동난지이 사오.

쟝스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하렴은.

논밧 가라 기음 매고 ~

논 밭 갈아 기음 매고 뵈잠방이 다임 쳐 신들메고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두러매고 무림 산중(茂林山中)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섶을 뷔거니 버히거니 지게에 질머 지팡이 바쳐 놓고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點心) 도슭 부시고 곰방대를 톡톡 떨어 닢담배 퓌여 물고 코노래 조오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이르며 긴 소래 저른 소래 하며 어이 갈고 하더라.

정석가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샹이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샹이다.

션왕셩딗(先王聖代)예 노니ᄋᆞ와지이다.

삭삭기 셰몰애 별헤 '나ᄂᆞᆫ'(여음)

삭삭기 셰몰애 별헤 나ᄂᆞᆫ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유덕(有德)ᄒᆞ신 님믈 여히ᄋᆞ와지이다.

옥(玉)으로 련(蓮)ㅅ고즐 사교이다.

옥(玉)으로 련(蓮)ㅅ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희 졉듀(接柱)ᄒᆞ요이다.

그 고지 삼동(三同)이 퓌거시아

그 고지 삼동(三同)이 퓌거시아

유덕(有德)ᄒᆞ신 님 여히ᄋᆞ와지이다.

므쇠로 텰릭을 ᄆᆞᆯ아 나ᄂᆞᆫ

므쇠로 텰릭을 ᄆᆞᆯ아 나ᄂᆞᆫ

텰ᄉᆞ(鐵絲)로 주롬 바고이다.

그 오시 다 헐어시아

그 오시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ᄒᆞ신 님 여히ᄋᆞ와지이다.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므쇠로 한쇼를 디여다가

텰슈산(鐵樹山)애 노호이다.

그 쇠듸텰초(鐵草)를 머거아

그 쇠 텰초(鐵草)를 머거아

유덕(有德)ᄒᆞ신 님 여히ᄋᆞ와지이다.

구스리 바회예 디신ᄃᆞᆯ

구스리 바회예 디신ᄃᆞᆯ

긴힛ᄃᆞᆫ 그츠리잇가

즈믄 ᄒᆡ를 외오'곰'(강세접미사) 녀신ᄃᆞᆯ

즈믄 ᄒᆡ를 외오곰 녀신ᄃᆞᆯ

신(信)잇ᄃᆞᆫ 그츠리잇가.

울해 달은 다리

김구

올해 댜른 다리 학긔 다리 되도록애

거믄 가마괴 해오라비 되도록애

향복무강(享福無彊) 하샤 억만세(億萬歲)를 누리소셔

이별요

님아 님아 우리 님아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병풍에 그린 닭이

꼭교 울면 다시 올래

옹솥에 삶은 밤이

싹이 나면 다시 올래

고목나무 새싹 돋아

꽃이 피면 다시 올래

님아 님아 우리 님아

병자년 보리 흉년에

장내 장아리 웃장 당그며

잔 엿가래 굵은 엿가래

사다 주던 우리 님아

어데 가서 올 줄도 모르는고

용 가는 데 구름 가고

비 가는 데 바람 가고

님 가는 데 나는 가오

출새곡

조우인

북방 이십여쥐예 경셩이 문회러니	북방(北方) 이십여주(二十餘州)에 경성(鏡城)이 門戶(문호)이러니
치병 목민을 날을 맛겨 보내시니	치병 목민(治兵 牧民)을 나를 맡겨 보내시니
망극ᄒᆞᆫ 셩은을 갑플 일이 어려웨라	망극(罔極)한 성은(聖恩)을 갚을 일이 어려워라.
셔싱 ᄉᆞ업은 한묵인가 너기더니	서생(書生) 사업(事業)은 한묵(翰墨)인가 여기더니,
빅슈 님변이 진실노 의외로다	백수 임변(白首 臨邊)이 진실로 의외(意外)로다.
인졍젼 ᄇᆡ ᄉᆞ하고 칼흘 집고 도라셔니	인정전(仁政殿) 배사(拜辭)하고 칼을 집고 돌아서니
만리 관하의 일신을 다 닛괘라	만리(萬里) 관하(關下)에 일신(一身)을 다 잊겠구나.
흥인문 ᄂᆡ다라 녹양의 ᄆᆞᆯ을 ᄀᆞ니	흥인문(興仁門) 내달아 녹양(綠楊)에서 말을 갈아타니,
은한 녯 길흘 다시 지나 간단 말아	은한(銀漢) 옛 길을 다시 지나 간단 말인가.
회양 녜 ᄉᆞ실 긔별만 드럿더니	회양(淮陽) 옛 사실(事實) 기별(寄別)만 들었더니
금달을 외오 두고 젹ᄀᆡᆨ은 무ᄉᆞᆷ 죄고	금달(禁闥)을 외롭게 두고 적객(謫客)은 무슨 죄인고.
참암 철녕을 험ᄒᆞᆫ 말 젼혀 마오.	참암 철령(嶔巖 鐵嶺)을 험(險)하단 말 전혀 마오.
셰도를 보거든 평딘가 너기노라.	세도(世道)를 보거든 평지(平地)인가 여기노라.
눈믈을 베ᄲᅳᆺ고 두어 거름 도라 셔니	눈물을 내어쏟고 두어 걸음 돌아 서니
쟝안이 어듸오 옥경이 ᄀᆞ리거다	장안(長安)이 어디인가, 옥경(玉京)이 가리었구나.
안변 이북은 져즘ᄭᅴ 호디러니	안변(安邊) 이북(迤北)은 저기쯤 호지(胡地)러니,
신소 셩젼ᄒᆞ야 벽국 천리ᄒᆞ니	신소 성전(迅所 腥膻)하여 벽국(闢國) 천리(千里)하니,

뉸관 죵셔의 풍공 위렬을	윤관(尹瓘) 종서(宗書)의 풍공(豊功) 위열(偉烈)을
초목이 다 아ᄂᆞ다	초목(草木)이 다 아는구나.
뇽흥강 건너 드러 졍평부 잠ᄭᅡᆫ 지나	용흥강(龍興江) 건너 들어 정평부(定平府) 잠깐 지나
만셰교 압희 두고 낙민누희 올나 안ᄌᆞ	만세교(萬歲橋) 앞에 두고, 낙민루(樂民樓)에 올라 안자
옥져 산하를 면면히 도라보니	옥저(沃沮) 산하(山河)를 면면(面面)히 돌아보니
쳔년 풍패예 울창 가긔ᄂᆞᆫ	천년(千年) 풍패(豊沛)에 울창(鬱蒼) 가기(佳氣)7)는
어졔론 덧 ᄒᆞ여셰라.	어제인 듯하여라.
함관녕 져문 날의 ᄆᆞᆯ은 어이 병이 든고	함관령(咸關嶺) 저문 날에 말은 어이 병이 든고.
만면 풍사의 갈 길히 머러셰라	만면(滿面) 풍사(風沙)의 갈 길이 멀었구나.
홍원 고현의 쳔도ᄅᆞᆯ ᄇᆞ라보고	홍원(洪原) 고현(高縣)에 천도(穿島)를 바라보고,
대문녕 너머 드러 졍히진에 드러오니	대문령(大門嶺) 넘어 들어 청해진(靑海鎭)에 들어오니
일도 후셜이요, 남북 요튱이라	일도(一道) 후설(喉舌)이요, 남북(南北) 요충(要衝)이라.
신신 졍졸로 니병을 베퍼시며	신신 정졸(信臣 精卒)로 이병(利兵)을 베풀었으니
강궁 경노로 요해ᄅᆞᆯ 디킈ᄂᆞᆫ ᄃᆞᆺ	강궁 경노(强弓 勁弩)로 요해(要害)를 지키는 듯
빅년 승평에 민불 지병ᄒᆞ니	백년(百年) 승평(升平)에 민불지병(民不知兵)20)하니
듕문 ᄃᆡ포ᄅᆞᆯ 닐너 므슴 ᄒᆞ리오	중문(重門) 대포(待暴)를 일러 무엇 하리오.
거산역 디나 드러 시듕ᄃᆡ 올나 안자	거산역(居山驛) 지나 들어 시중대(侍中臺) 올라 앉아
디쳑 부상의 일출을 구버 보고	지척 부상(咫尺 扶桑)에 일출(日出)을 굽어보고
댱숑 십리 ᄭᆞᆯ헤 졍마ᄅᆞᆯ 다시 뵈와	장송(長松) 십리(十里) 길에 정마(征馬)를 다시 보아

단쳔을 겨틔 두고 ᄉᆞ디헌을 ᄎᆞ자 가니　단천(端川)을 곁에 두고 사지헌(四知軒)을 찾아 가니

빅긔 쳥풍을 다시 본 ᄃᆞᆺ ᄒᆞᆫ뎨이고　백기 청풍(伯起 淸風)을 다시 본 듯 하였구나.

마운녕 채 쳐 너머 마곡역 ᄆᆞᆯ을 쉬워　마운령(磨雲嶺) 채 쳐 넘어 마곡역(麻谷驛) 말을 쉬어

젹셜 마쳔을 허위허위 너머 드니　적설 마천(積雪 磨天)을 허위허위 넘어 드니

진관이 어듸고 촉잔이 여긔로다　진관(秦關)이 어디인가, 촉잔(蜀棧)이 여기로다.

셩딘 셜딘이 형셰ᄂᆞᆫ 됴커니와　성진(城津) 설진(設鎭)이 형세(形勢)는 좋거니와

난후 변민이 고혈이 ᄆᆞᆯ나시니　난후(亂後) 변민(邊民)이 고혈(膏血)이 말랐으니

묘당 육식은 아ᄂᆞᆫ가 모ᄅᆞᄂᆞᆫ가　묘당(廟堂) 육식(肉食)은 아는가, 모르는가.

빅두산 일믹이 댱빅산 되어 이셔　백두산(白頭山) 일맥(一脈)이 장백산(長白山) 되어 있어

쳔리ᄅᆞᆯ ᄒᆞᆫ격ᄒᆞ야 강역을 ᄂᆞᆫ홧거든　천리(千里)를 한격(限隔)하여 강역(彊域)을 나누었거든

진보 셩나ᄒᆞ고 군읍이 긔포ᄒᆞ니　진보(鎭堡) 성라(星羅)하고 군읍(郡邑)이 기포(碁布)하니

표리 쳔험은 장호미 그지업다　표리(表裏) 천험(天險)은 장(壯)함이 그지없다.

년쳔 창히예 풍셜이 섯티ᄂᆞᆫᄃᆡ　연천(連天) 창해(滄海)에 풍설(風雪)이 섞어 치는데

발셥 긔구ᄒᆞ야 목낭셩의 드러오니　발섭(跋涉) 기구(崎嶇)하여 목랑성(木郎城)에 들어오니

쳔심 분쳡은 반공의 빗겨 잇고　천심(千尋) 분첩(粉堞)은 반공(半空)에 비껴 잇고

빅댱 심호ᄂᆞᆫ ᄉᆞ면의 둘너시니　백장(百丈) 심호(深濠)는 사면(四面)에 둘렀으니

인화를 어들션정 디리야 부죡ᄒᆞᆯ가　인화(人和)를 얻을지언정 지리(地利)야 부족(不足)할까.

원문이 무ᄉᆞᄒᆞ고 막뷔 한가ᄒᆞᆫ 제　원문(轅門)이 무사(無事)하고 막부(幕府)가 한가(閑暇)할 제

동산 휴기ᄒᆞ고 북히준을 거훌우랴　동산(東山) 휴기(携妓)하고 북해준(北海鐏)을 기우리랴.

연화 삼월의 원슈ᄃᆡ예 올나가니　　연화(烟花) 삼월(三月)에 원수대(元帥臺)에 올라가니

츈풍 이탕ᄒᆞ야 슉경을 부쳐 내니　　춘풍(春風) 이탕(駘蕩)하여 숙경(淑景)을 부쳐 내니

만슈 쳔림은 홍금이 되어 잇고　　만수 천림(萬樹 千林)은 홍금(紅錦)이 되어 있고

운도 셜낭은 하ᄂᆞᆯ을 ᄀᆞ을 사마　　운도 설랑(雲濤 雪浪)은 하늘을 경계 삼아

분박 뇌졍ᄒᆞ야 ᄃᆡ 압희 물너디니　　분박 뇌정(噴薄 雷霆)하여 대(臺) 앞에 무너지니

은산이 거듯ᄂᆞᆫ가 옥셜을 ᄂᆞᆯ니ᄂᆞᆫ가　　은산(銀山)이 걷히는가 옥설(玉屑)을 날리는가.

깁 ᄀᆞ탄 쟘씌예 ᄇᆡᆨ운 ᄀᆞᄐᆞᆫ 솔을 치고　　깁 같은 잔디에 백운(白雲) 같은 솔을 치고

쳔양 묘기로 숭부ᄅᆞᆯ ᄃᆞᆺ토거든　　천양 묘기(穿揚 妙妓)로 승부를 다투거든

ᄇᆡᆨᄃᆡ 홍장은 좌우의 버러 이셔　　백대 홍장(百隊 紅粧)은 좌우(左右)에 벌려 있어

진징 됴슬을 ᄐᆞ거니 니희거니　　진쟁 조슬(秦箏 趙瑟)을 타거니 흔들거니

호티 셰요로 추거니 부르거니　　호치 세요(皓齒 細腰)로 추거니 부르거니

쇼화도 그디업고 풍경이 무딘ᄒᆞ니　　소화(韶華)도 그지없고 풍경(風景)이 무진(無盡)하니

일츈 힝낙이 슬의염즉 ᄒᆞ다ᄆᆞᄂᆞᆫ　　일춘(一春) 행락(行樂)이 싫증난 즉 한다마는

향관을 ᄇᆞ라보니 오령이 ᄀᆞ려 잇고　　향관(鄕關)을 바라보니 오령(五嶺)이 가려 있고

이디 산쳔은 뉵딘이 거의로다　　이지(異地) 산천(山川)은 육진(六鎭)이 거의로다.

명시 뎍관이 도쳐의 군은이로ᄃᆡ　　명시(明時) 적관(謫官)이 도처(到處)에 군은(君恩) 이로되

원신 금뎐을 뉘 아니 슬허ᄒᆞ며　　원신(遠身) 금전(金殿)을 뉘 아니 슬퍼하며

듕입 슈문을 어이ᄒᆞ여 期必ᄒᆞᆯ고　　중입 수문(重入 修門)을 어이하여 기필(期必)18)할까.

평싱 먹은 ᄯᅳ디 젼혀 업다 ᄒᆞᆯ가마ᄂᆞᆫ　　평생(平生) 먹은 뜻이 전혀 없다 할까마는

시운의 타시런가 명도의 ᄆᆡ엿ᄂᆞᆫ가　　시운(時運)의 탓이런가, 명도(命途)에 매었는가.

딘ᄃᆡ 빅슈의 셰월이 쉬이 가니　　진대 백수(秦臺 白首)에 세월(歲月)이 쉬이 가니

초틱 쳥빈은 원ᄉᆞ도 한 제이고　　초택 청빈(楚澤 靑蘋)은 원사(怨思)도 한 제이고.

이 잔 ᄀᆞᆮ득 부어 이 시름 닛댜 ᄒᆞ니　　이 잔(盞) 가득 부어 이 시름 잊자 하니

동명을 다 퍼내다 이 내 시름 어이 ᄒᆞᆯ고　　동명(東溟)을 다 퍼내다 이 내 시름 어이 할까.

어뷔 이 말 듯고 낙ᄃᆡ를 둘너 메고　　어부(漁夫)가 이 말 듣고 낚싯대를 둘러메고

ᄇᆡ 쪈 두드리고 노래를 부른 말이　　뱃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셰ᄉᆞ를 니전디 오라니 몸조차 니전노라　　세사(世事)를 잊은 지 오래니 몸조차 잊었노라.

빅ᄉᆞ 싱애ᄂᆞᆫ 일간듁 ᄲᅮᆫ이로다　　백사(百事) 생애(生涯)는 일간죽(一竿竹)3) 뿐이로다.

빅구ᄂᆞᆫ 나아 버디라 오명 가명 ᄒᆞᄂᆞ다　　백구(白鷗)는 나와 벗이라, 오명 가명 하는구나.

유원십이곡

안서우

내 마음 져버아 남의 생각하니

나 슬흐면 남슬코 남 됴흐면 나 됴흐니

모로미 기소불염(己所不念)을 물시어인(勿施於人)하리다. (序章)(프롤로그)

문장(文章)을 하쟈하니 인생식자(人生識字) 우환시(憂患始)오

공맹(孔孟)을 배호려 하니 도약등천(道若登天) 불가급(不可及)이로다

이 내 몸 쓸 데 업스니 성대농포(聖代農圃) 되오리라. (제 1 장)

청산(靑山)은 무스 일노 무지(無知)한 날갓타며

녹수(綠水)는 엇지하야 무심(無心)한 날 가타뇨

무지(無知)타 웃지 마라 요산요수(樂山樂水)할가 하노라. (제 2 장)

홍진(紅塵)에 절교(絶交)하고 백운(白雲)으로 위우(爲友)하야

녹수(綠水) 청산(靑山)에 시름 업시 늘거가니

이 듕의 무한지락(無限之樂)을 헌사할가 하노라. (제 3 장)

경전(耕田)하야 조석(朝夕)하고 조수(釣水)하야 반찬(飯饌)하며

장요(長腰)의 하겸(荷鎌)하고 심산(深山)의 채초(採樵)하니

내 생애(生涯) 이뿐이라 뉘라셔 다시 알리. (제 4 장)

내 생애(生涯) 담박(澹泊)하니 긔 뉘라셔 차자 오리

입오실자(入吾室者) 청풍(淸風)이오 대오음자(對吾飮者) 명월(明月)이라

이 내 몸 한가(閑暇)하니 주인(主人) 될가 하노라. (제 5 장)

인간(人間)의 벗 있단말가 나는 알기 슬희여라

물외(物外)에 벗 업단말가 나는 알기 즐거웨라

슬커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하노라. (제 6 장)

영산(嶺山)의 백운기(白雲起)하니 나는 보뫼 즐거웨라

강중(江中) 백구비(白鷗飛)하니 나는 보뫼 반가왜라

즐기며 반가와 하거니 내 벗인가 하노라. (제 7 장)

유정(有情)코 무심(無心)할손 아마도 풍진붕우(風塵朋友)

무심(無心)코 유정(有情)할손 아마도 강호구로(江湖鷗鷺)

이제야 작비금시(昨非今是)를 깨다른가 하노라. (제 8 장)

도팽택(陶彭澤) 기관거(棄官去)할 제와 태부(太傅) 걸해귀(乞骸歸)할 제

호연행색(浩然行色)을 뉘 아니 부러하리

알고도 부지지(不知止)하니 나도 몰나 하노라. (제 9 장)

내 마음 정(定)한 후(後)니 위빈이사(爲貧而仕) 거즌말이

내 몸을 자전(自專)티 못하니 위친이굴(爲親而屈)이 올흔 말이

이제나 양극전성(養極專城)하니 도라갈가 하노라. (제 10 장)

인간(人間) 풍우(風雨) 다하니 므스일 머므느뇨

물외(物外)에 연하(煙霞) 족(足)하니 므스일 아니 가리

이제는 가려 정(定)하니 일흥(逸興)계워 하노라. (제 11 장)

먹거든 머지 마나 멀거든 먹지 마나

멀고 먹거든 말이나 하련마는ᄂᆞᆫ

입조차 벙어리되니 말 못하여 하노라 (제 12 장)

월야첨향로

혜초

月夜瞻鄕路 浮雲颯颯歸　　월야첨향로 부운삽삽귀

緘書參去便 風急不聽廻　　함서삼거편 풍급부청회

我國天岸北 他邦地角西　　아국천안북 타방지각서

日南無有雁 誰爲向林飛　　일남무유안 수위향림비

달밤에 고향 가는 길 바라보니

뜬구름만 바람에 둥실둥실 흘러가는구나.

구름이 가는 편에 편지를 보내려 하나

바람이 너무 빨라 돌아오란 말 듣지도 않네.

우리나라는 저 하늘 북쪽에 있고

타국은 땅 모퉁이 서쪽이구나.

해 뜨는 남쪽에는 기러기도 없으니

누가 나를 위해 고향 숲 향하여 날아가 주랴

춘설유감

최명길

絶域逢春未覺春	이역에서 맞는 봄은 봄인 줄 모르겠더니
朝來驚見雪花新	이 아침에 내리는 눈꽃 놀라서 바라보네
莫將外物爲欣慼	외물에 기쁘지도 슬프지도 말지니
春意分明在此身	봄기운 분명히 내 몸 안에 있으니